

2023년 6월 20일 한국은행-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환영사

2023. 6. 20.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오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린맨으로 많은 열정을 쏟아내고 계신 김상협 위원장님, '한국의 녹색금융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금융위 권대영 상임위원님, 주제발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BIS이노베이션허브 베네딕트 놀렌스 센터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정부, 은행, 기업, IB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별한 애정을 담아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탄녹위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아 한국은행이 새 건물에 입주해서 정부기관과 갖는 첫 번째 컨퍼런스라는 점에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역할이 요구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범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기념사에서 저는 팬데믹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즉 뉴노멀(new normal)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세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약 40억명이 기후재해로 영향을 받았고, 5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피해는 3,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¹⁾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폭염, 산불,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광역화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러한 재난위기와 보건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3% 정도가 “심각하다” 했지만 앞으로 기후위기를 건강위기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²⁾

1) 자세한 내용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주요 내용」(2022.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인식도 조사'(2022.10월) 결과 참조.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이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2021년 기준)가 64%로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20%에서 4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에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2019년 기준)이 28%로 높은 가운데,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4개 업종의 비중도 한국이 5.3%로 주요 선진국(미국 2.5%, 독일 2.8%, 프랑스 1.7%)에 비해 높습니다.³⁾

이 같은 에너지구조, 산업구조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⁴⁾(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의 RE100 캠페인,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강력한 조치 등이 좋은 예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2022.12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참고7.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제 비교를 통한 국내기업의 취약성 점검」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2023.6.21일 배포되는 2023.6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참고9.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과 기업 취약요인」 참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투자회사 등으로 결성된 '글래스고 금융협의체(GFANZ)'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가 공표한 목표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 다가올수록 친환경관련 글로벌 규제와 목표달성 압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의 40% 감축하고, 녹색프로젝트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환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과거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한 바 있는 선진국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백신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앤텍, 모더나 같은 바이오 기업에게는 비약적인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역시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전력사용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업체인 미국의 오파워, 이산화탄소를 고체탄소로 바꿔 판매하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드는 미국의 루비콘 같은 글로벌 기후 벤처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테크 투자자금이 2021년 450억달러로 2년 사이에 3배 성장했고, 환경, 에너지, 농식품, 지리관측 등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도전해 볼만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작이긴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개발 등의 조사연구⁵⁾와 함께 외화보유고를 운용함에 있어 ESG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2021.6월 금융안정보고서 내 참고7.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2022.6월 참고7. 「온실가스 배출권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참조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으로의 공정전환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할 경우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기업들도 글로벌 환경관련 규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은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스스로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녹색금융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모아 증권화(securitization)하고, 이 과정에서 녹색금융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이 녹색금융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탄녹위와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 경제환경에 특화된 녹색금융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